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에 “적정성 검토후 청문절차서 소명”

‘광주 학동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 및 가져분신청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앞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16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8개월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집행정지 가져분을 신청해 당장의 영업정지를 피했으나, GS건설의 영업정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GS건설은 27일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

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을 내

리기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당장 GS건설의 영업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영업정지 자체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때 HDC현대산업개발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했으나,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를 한 처벌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 처분만 가능하게 돼 있었던 점을 이용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과 관련 해선 별도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집행정지 가져분을 신청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 아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 나

오지 않았다.

하지만 GS건설의 경우는 다르다.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못하며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GS건설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져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GS건설은 2022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즉각 집행정지 가져분을 신청한 바 있다.

/ 송원기 기자

이은주 의원, “김현숙, 챔버리 조직위 관계자와 공짜 숙박”

“숙박비 3만원” 여가부 해명과도 배치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체스카우트 챔버리 대회 기간 영지가 아닌 인근 숙소에서 묵은 사실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숙소에는 김 장관뿐만이 아닌 조직위 관계자도 묵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장관 혼자 묵은 것으로 알려진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 조직위 관계자들도 대거 공짜로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31개 생활관 중 25개 생활관을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조직위에 빌려줬다.

2인실과 3인실, 4인실, 6인실, 8인실 등을 썼는데 이중 김 장관은 2인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는 하루 110명이 머무를 수 있는데 조직위가 25곳을 썼다면 대략 80~90명가량의 인원이 숙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기

간 일반인의 인터넷 예약은 막아놓았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 의원 측에 “생활관 25곳만 후원했을 뿐 방 배정도 조직위가 했고 (투숙자) 명단도 주지 않아 구체적 숙박 인원은 물론 김 장관의 숙박 사실도 몰랐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직위 관계자들이 생활관을 공짜로 쓴 사실은 ‘숙박비가 3만원가량으로 저렴해 생태탐방원을 숙소로 정했다’는 여가부의 해명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지난 20일 김 장관이 야영하

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숙영을 검토했으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경찰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위해 요소가 커질 우려가 제기돼 숙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 박현우 기자



Photo News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오염수 투기는 테러…즉각 중단”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주최 측 5만명 참가 추산

토요일인 26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9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어 한일 양국 정부를 규탄했다.

시청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 4개 차로를 메운 참가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철회’, ‘윤석열 정권 규탄’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일본은 핵 오염수를 자국 내에 보관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동행동 등은 “일본 정부가 인류와 바다 생태계에 대한 핵 테러 범죄 행위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국의 시민들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일본이 핵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5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은 7천여명으로 추산했으나 정확한 인원은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도로 건너편 인도에서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면서 양측 일부 참가자가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 등을 외치며 맞섰으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거쳐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공동행동 등은 9월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연다.

/ 김은성 기자



중소기업 대표 경영안전망

PL 단체보험



국내 최초 운영
20년간 약 7만건 인수



경쟁력 있는 보험료
최대 25% 저렴



경기도 보험료 지원
보험료 20% 이내(백만원 한도)



6개 보험사 참여
삼성화재, 한화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가입문의 02)2124-4351 www.plkorea.com

* PL 단체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KBIZ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이주호 “9월 4일 교사 연가사용, 또 다른 갈등 촉발 우려”

“교권회복에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추모는 저녁 시간이나 온라인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면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으로 연가를 사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자체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집회 참여를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이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시들 사이에서는 지난 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해 고인의 49재 일인 9월 4일을 ‘공교육 면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는 “(고인을) 추모하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회복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상황에서 (재량휴업이나 연가 사용은) 분쟁적이고 갈등이 유



전국교사일동,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촉구 집회

발될 수 있고, 정치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일 연가를 낼 예정인 교사가 8만명 이상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추모 참여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글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연차를 내거나 휴교를 결정한 곳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교육 면춤의 날’ 참여자 집계

당 계시물을 삭제하고 “이 움직임의 취지는 각자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이었다”며 “(집계는) ‘집회’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해당 계시물에서는 25일까지 8만명 이상이 ‘공교육 면춤의 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식보다는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 요청의 목소리를 높일 다양한 방식이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

사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각 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교가 이날 임시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은 ‘학교 임시휴업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교원의 연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은 수업 후 저녁 시간에 기릴 수도 있고 온라인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이은성 기자



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1년

227만명 혜택…저출생대책 4종 ‘2.0’ 추진

서울시는 오세훈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한 1년간 총 227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오 시장이 작년 8월 18일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양육자 관점에서 마련한 최초의 종합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 결과 한 달 만에 4천83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신청자 중 기준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위소득 180% 이상 비율이 63.8%로 매우 높았다.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꾸준히 늘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이용률(51.4%)을 달성했으며 보육의 공공성을 높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40개에서 60개 공동체로 확대했다.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틈새 정책’은 올해 1월 시행 이후 이용 건수 1만1천600건을 넘어섰다. 등하원 전담 2천148건, 아동아이 돌봄 870건, 영아전담 돌봄 8천 582건 등이다.

아울러 총 758개 공간이 양육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돌봄 인프라 등으로 새롭게 조성됐거나 양육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총 10곳이 조성돼 4만6천여명이 이용했다.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는 각각 97.6%, 96.9%로 높게 나타났다.

편한 외출을 위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등 5곳에, ‘가족화장실’

은 한강공원 등에 13곳이 만들어졌다. 아동반 손님을 환영하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9개월 만에 500여곳 넘는 업체가 동참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개시 하루 만에 1만명이 신청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를 위한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는 개소 2개월여 만에 900여명에게 온오프라인으로 무료 발달검사를 지원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4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아 휴직 장려금’, 조부모 돌봄수당을 포함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가입력 보존을 원하는 20~49세 여성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이다.

4개 사업 중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3개 사업은 새로 열리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인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와 저출생 대책을 통합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

기존 4개 분야 28개 사업에서 5개 분야 55개 사업으로 규모를 키우고 재정 투입도 당초 5년간 1조9천287억원에서 2조4천246억 원으로 늘린다.

올해 시민 호응이 특히 높았던 사업은 내년에 확대 시행한다.

/ 진성훈 기자

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다시 파헤친다…내달 추가 검사

기업은행 등 판매사 위법 여부 재점검…분쟁조정 새 탄력 예고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끊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조사한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기업은행[024110]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조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

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천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조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 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달러를 모집했는데, AA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고 보고 있다.

디스커버리 펀드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와 투자 제안서에 수의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는 금감원의 3대 펀드 재조사 결과 과과 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재조사 결과가 운용사들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판매사의 내부통제 기준의무 위반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 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 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라임 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 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 최희진 기자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LNG사업 밸류체인 완성·



With POSCO

posco
INTERNATIONAL

‘철근누락 사태’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철퇴’

“위법행위에 무관용”…국토부 8개월 처분·서울시에 2개월 요청

인천 견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또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견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 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재시공 결정된 견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또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 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국토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

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았다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체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협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견단아파트의 주거동에 대

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를 진행한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을 그 원인으로 제시했다.

주거동에서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은 주거동을 포함해 견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철근 누락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품질관리 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GS건설은 견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전국의 건설 중인 현장 83곳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해 국토부가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원 장관은 “안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노승만 기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가열되자 27일 다시 입장문을 내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 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을 직접 소개했다.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돼 전종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 3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착각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봐 형량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와 조건남장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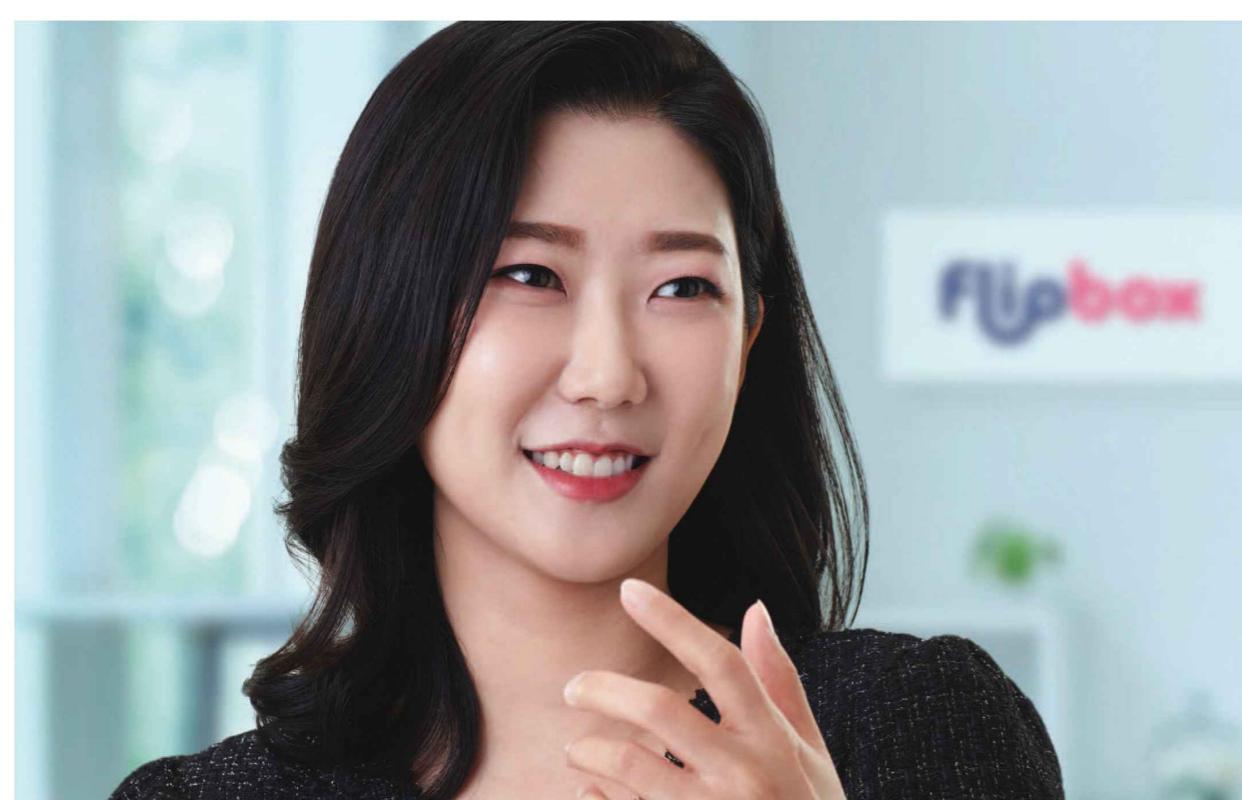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이승호 기자



World EXPO 2030
BUSD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축원합니다

#파트너사이야기 #유독1주년 #새로운 친구발견



한정된 고객에서 벗어나 시장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기존에도 유아 흡수 키트 정기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과의 제휴는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에 도전해보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저희는 이미 가입한 한정된 고객만을 위한 접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유독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키즈가구 타겟 마케팅도 해볼 수 있었어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유독이 저희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준 셈이죠~

‘U+ 파트너 키우는 정세경 대표님’

이런 생각, 정세경님의
WHY NOT?
유플러스 유독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9월부터 3일→7일 확대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 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미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손현수 기자

환경부 “농산물 포장 그물망·띠지 사용 자제”



그물망과 팬캡은 빼고, 띠지 스티커는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하고.

환경부는 27일 농산물 생산·유통 과정에서 친환경 포장을 권장하기 위해 마련

미만 농산물을 포장할 때는 양면 골판지 1종을, 2kg 이상 10kg 미만 농산물을 포장에는 양면 골판지 2종을 쓴다.

인쇄물을 따로 부착하는 대신 상자에 바로 그려 넣고, 띠지 스티커를 레이저 각인으로 대체하고, 팬캡과 그물망 같은 이 중포장재를 줄이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신지에서 매장으로 농산물을 운반할 때 펠릿을 사용하고 매장에서는 날개로 판매하는 등 무포장 판매 방식에 대한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환경부는 농산물을 출하하거나 유통할 때 지침을 참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포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홍은수 기자

野 의원들, 후쿠시마서 ‘오염수 방류반대 집회’ 참석…“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27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일본 정부에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등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현 이와카시에서 열린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일본 시민단체와 정당, 노조 등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쿄전력 해양 방출 반대 전국행동 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이 집회에는 일본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의 후쿠시마본부 대표 에미 가네코 의원, 사회민주당 대표 후쿠시마 미즈호 의원,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과 현지 어민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대책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부터 여섯번째) 의원이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카시에서 열린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시다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지지하는 형국이지만 대다수 한국 국민은 명백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에도 서울에서 5

만 명이 넘는 국민이 오염수 투기 반대를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해치는 기시다 정부의 범죄적 행위에 대

/ 송원기 기자

해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한국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런던협약 위반에 대한 IMO(국제해사기구) 종회 대응을 비롯한 국제법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후쿠시마 어민과 시민을 넘어 모든 일본의 어민과 시민, 한국 어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한국과 일본 시민이 연대해 하루빨리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자”고 촉구했다.

제 1·2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방류 중단을 촉구했다.

/ 송원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조성된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동이가족 초청행사에 깜짝 방문,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尹부부, 천안함서초 입고 용산어린이정원

다동이 행사 ‘깜짝방문’

국방부 “육사 독립군 흉상 이전, 국군 뿌리서 배제는 아냐”

흉범도 5인 흉상 이전 추진 “공산당 가입 등 논란 있어”…야권은 반발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 내 흉범도 장관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6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생도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에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과 흉상 이전 문제를 협의 중이다.

국방부는 “국난 극복의 전체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광복군 흉상들만이 사관생도들이 매일 학습하는 건물의 중앙현관 앞에 설치돼 있어 위치의 적절성, 역사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특히

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봉오동 전투를 이끈 흉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육사 총무관 앞에는 흉범도·김좌진·지청천·이병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희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는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이런 방침에 야권과 광복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생도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이제는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이나마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역사 인식이 통탄스러울 때를”이라고 비판했다.

흉범도 장군·우당 이희영·신흥무관학교·백야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독립전쟁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광복회도 성명을 내고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여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 권정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6일 오후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동이가족 초청행사에 깜짝 방문했다.

면적 6만m²(1만8천평) 규모의 용산어

수정원 옆 야구장에서 종양이글팀과 도곡초등학교의 경기를 지켜보기도 했다.

천안함 서초를 맞춰 입은 대통령 부

린이정원 분수정원은 이달 12일 개장했

분수정원 지난 12일 개장

대통령실 “깨끗한 흙 50cm 덮어 기존 토양과 차단”

부는 어린이 한 명 한 명과 기념 활영을 하고 몇 살인지, 물놀이는 재미있는지 물으며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다자녀 등 총 68가족, 270여명(어린이 140여명)이 모여 O·X 퀴즈, 훌라후프 돌리기, 아이돌 댄스 따라하기, 컬러판 뒤집기 등 단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과 인사한 뒤

분수정원 안에는 1천800m²(540평) 규모의 물놀이 공간이 있으며 놀이터와 카페도 마련됐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반환 받은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으로 꾸민 곳으로, 윤 대통령 집무실과 맞닿아 있다.

분수정원 공사 과정에선 깨끗한 흙을 50cm 이상 두께로 데고 잔디를 심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했으며,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분수 수질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 황수진 기자

與 ‘위기론’ 수도권에 힘 받는 중진 역할론…‘다국적군’ 꾸릴까

나경원·원희룡 ‘총선 몸풀기’에 관심 급증…오세훈·안철수 역할론도 주목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와 기후, 내일’ 창립포럼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중진 역할론’이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총선 앞 몸풀기’ 행보가 최근 잇따르자 이들처럼 수도권에 기반하고 인지도가 높은 중진들이 간판으로 나서 ‘위기론’을 돌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고 3·8 전당대회 이후 5개월 만에 여의도를 찾았다. 본격적인 총선 행보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행사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고,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라며 3번 연속 서울에서 당선된 나 의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친윤(친윤석열) 계외과 모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총선

승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인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원 장관을 총선에 차출해 가장 열세로 꼽히는 경기도 선거를 이끌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에선 원 장관이 내각에 남아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사회간접자본(SOC) 정책으로 총선을 ‘측면 지원’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또 다른 중량급 여권 인사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총선 역할에 대한 기대도 상당하다.

오 시장이 서울시와 관련한 각종 정책적 뒷받침으로 수도권 선거의 방향을 좌우할 ‘키’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직후 재보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 갑에 터를 잡은 안철수 의원 역시 선거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중수청’(중도·

수도권·청년)에 강점을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다는 점에서 총선 역할론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처럼 중진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각자 ‘한 끼’하는 힘을 한데 끌어모아서라도 ‘수도권 위기론’을 뚫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여권의 절박함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 글에서 “총선에서 지면 내일은 없다”며 “지금은 지겟작대기라도 모아 총선에 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다국적군’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월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당 대표) 경선 때 저와 경쟁을 벌였던 분 중에 훌륭한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바 있어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권이 ‘다국적군’을 꾸릴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 송유경 기자

SK telecom

T roaming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청년 요금제가입 고객님 상당 50% 할인

SK telecom WAVE

baro 요금제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화면의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끼방(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제외)

0청년 요금제가입 시 50% 할인자동 적용 | 할인 및 수신일정 일정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요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をご覗く

與 “정진석 실형” 박병곤, 정치적 성향 판결로 표출 의심

“박병곤이 내린 명예훼손 판결 35건 중 정진석만 실형”



국민의힘은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자당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최현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날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정 의원에게 겹칠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 판사는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박 판사

의 SNS 글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라며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판결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뚜렷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 ‘위기의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히 시급”이라고 강조했다.

/ 김민재 기자

은평구 흥기대치 30대 “자해하려고 했다”

출동한 경찰에 “가족 불러달라, 소주 사달라” 요구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면 A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든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체포된 30

대 후반 남성 A씨가 자해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인질을 붙잡지는 않았으나 경찰과 대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께 범행장소 맞은 편 호프집에 혼자 들어가 2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문제로 고민을 도로하기도 했다고 한 목격자가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담배를 피우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하자 경찰에게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 박우진 기자



‘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원→1억6천만원으로 줄어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대폭 줄어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천6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각각 정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평가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를 포함하면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결과 2억8천여만원으로 감소 한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 했다. / 최경문 기자

‘판사가 읽을까’ 의심하던 정유정, 6차례나 반성문 제출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정에게 본인의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당시 심경과 범행을 결의한 계기, 할아버지와 가족 사항, 반성문에 담긴 학교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후 정유정은 최근 한 달여 동안 재판부에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등 어른들에게 무시당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아주 강력한데 판사가 반성문을 통해 본인의 그런 욕

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사선 변호인과 함께 출석

범죄심리 전문가들 “인정 욕구 따른 것…재판 열심히 임할 듯”

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7월 14일 열었고, 이어 2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유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국선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데 이어 본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첫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부가 정유정의 반성문에 대해 언급한 부분과 그 이후 상황에 주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유정이 지난 7월 7일 처음 제출한 반성문을 언급하며 “반성문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반성문을 판사가 읽어볼까 의심하며 썼던데,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반성문을 구체적으로 다 읽어본다”며 “본인이 썼을 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써내기를

구를 알아봐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의 지시에 순응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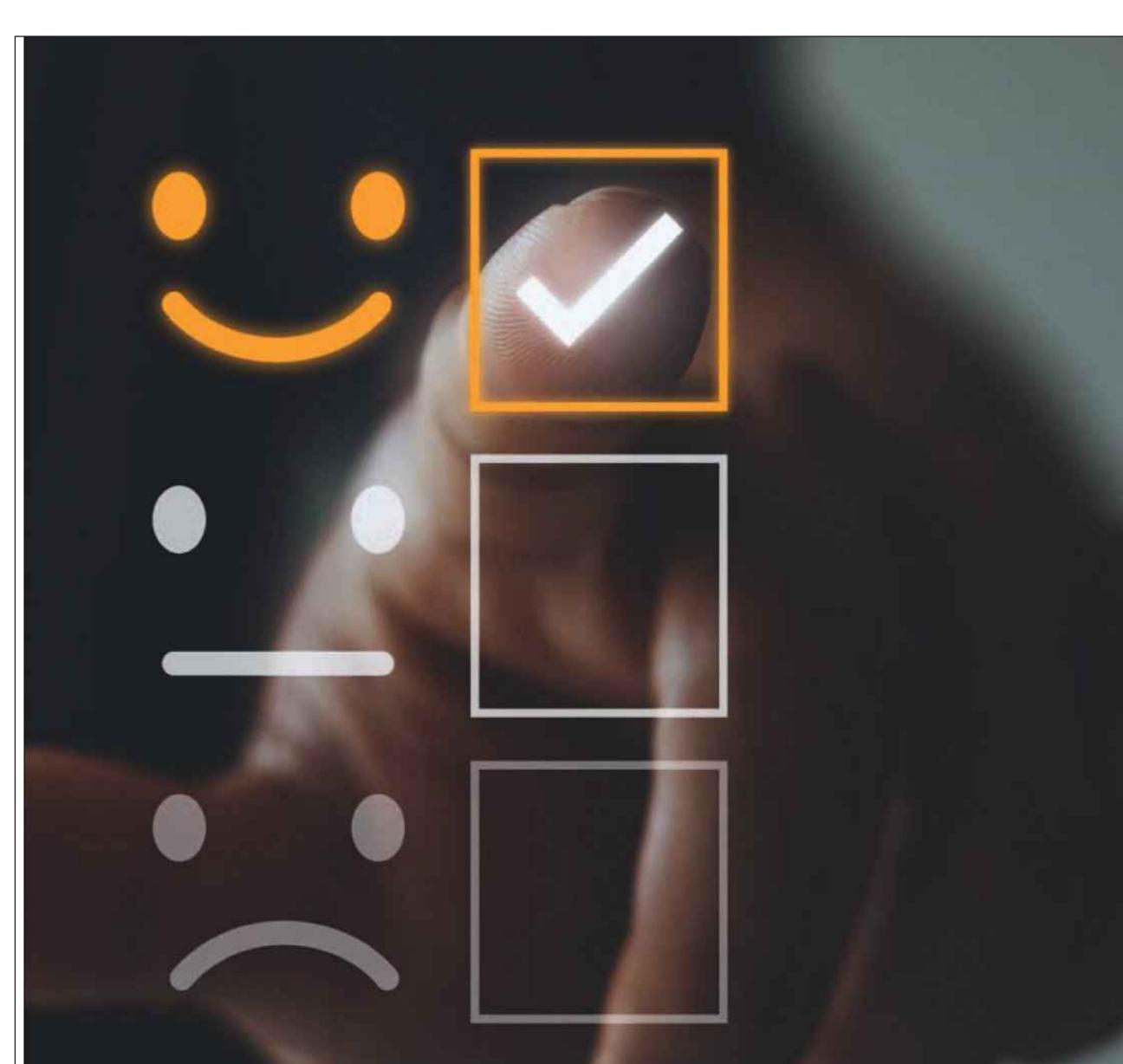
이 교수는 “실제로 정유정이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을 것을 예상도 있지만, ‘경계적 성격장애’ 성향도 보이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판사가 응대해주는 등 소통할 기회를 잡는 셈이고, 그러한 과정을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이벤트로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유정이 사회적 소통과 연결이 봉쇄된 상태로 살다가 긴밀한 범죄를 계기로 법정에 서면서 본인에게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유정은 이번 재판 자체를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이기에 모든 과정에 열심히 임할 것”이라며 “형량을 낮추고 맡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박정민 기자



손해보험에 대해 상담받고 싶을 땐?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전화
대표 클센터
02-3702-8500

인터넷 & 모바일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consumer.knia.or.kr)
접속 ⇒ 보험상담 접수

카카오톡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
채널 추가 ‘상담’ 메뉴 클릭
* 이용 가능시간 : 08:10~11:30, 13:10~17:30 (주말, 공휴일 제외)

•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상품별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전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소비자가 어디에서든 손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22.6.14.부터 카카오톡 상담 시스템을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日환경성 “오염수 방류 후 첫 바닷물 검사서 삼중수소 안나와”

도쿄전력·수산청·IAEA, 방류 이후 바닷물·물고기 조사서도 정상범위

일본 환경성이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주변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다음 날인 지난 25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 이내 11개 지점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모든 지점에서 검출 하한치인 L당 7~8베크렐(Bq)을 밀دون 것으로 확인됐다.



도쿄전력·수산청·IAEA, 방류 이후 바닷물·물고기 조사서도 정상범위

환경성은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할 수 있는 하한치를 밀돌아 인간이나 환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 지점에서는 세슘137 등의 방사성 물질 농도도 조사했지만, 모두 검출 하한치를 밀돌았다.

환경성은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성은 앞으로 11개 지점에서 주 1회 바닷물을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다.

환경성과 별도로 진행된 도쿄전력과 일본 수산청,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에서도 방류 이후 모두 삼중수소가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청은 25일 원전 방수구 인근에서 잡은 물고기를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날 발표했다.

앞서 도쿄전력도 원전을 기준으로 반경 3km 이내 10곳에서 25일 채취한 바닷

물 표본을 분석한 결과, 방류 이틀째 삼중수소 농도가 매우 낮았다고 전날 밝혔다.

모든 지점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가능한 하한치보다 낮았고 유의미한 변동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도쿄전력은 전했다.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점에서 L당 700Bq, 이보다 면 지점에서 L당 30Bq을 각각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가 중단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류 데이터와 안전성 평가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개설한 웹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희석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L당 207Bq이다.

도쿄전력은 바닷물에 희석한 오염수를 하루에 약 460톤(t)씩 방류하고 있다. 방류 시 삼중수소 농도는 L당 1천500Bq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백건우 기자



불타는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참사’ 잣더미된 하와이 마을에 또 불길…한때 대피령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를 겪은 하와이

마우이섬 서부에 또 화재가 발생해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로이터, A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와이 비상관리국(EMA)은 이날 엑스(X·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지적 산불로 인해 마우이섬에 대피령이 발령됐다”며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가족과 반려동물을 피신시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공 안전 인력을 찾으라”고 공지했다.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마우이섬 라하이나의 아나푸니 루프에서 웨스트 마히풀루에 걸친 지역으로, 지난 8일 발생한 산불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곳에서 불과 몇km 떨어져 있다.

다만 하와이 당국은 후속 공지를 통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냈으며, 추가적인 위협은 없다”

고 전했다.

당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피령을 해제했다.

마우이섬 당국은 별도로 “화재 상황은 안정되었으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도 휴대전화와 라디오, TV를 통해 추가 정보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하와이 안전당국은 산불 발생 당시 경보 사이렌을 제대로 울리지 않은 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마우이 EMA 국장이었던 허먼 안다야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예기치 않은 혼란을 우려했다”며 사람들이 산 쪽으로 피신할까봐 경보를 울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튿날 사임했다.

산불 발생 18일이 지난 이날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남은 실종자는 33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 오창민 기자

‘비상사태 선포’ 러시아 연해주 폭우 피해 복구에 北주민도 동참

국경 폐쇄로 연해주 남은 북한 노동자들로 추정…러 “도움에 감사”

최근 내린 폭우로 주택, 도로 등이 침수된 러시아 극동 연해주 피해 현장에 북한 주민들이 직접 나와 복구 작업을 도왔다고 2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해주 국제협력 기관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폭우 피해가 난 연해주 우수리스크 중앙 시장에서 삽 등을 들고 복구 작업 중인 북한 주민들의

사진을 올리며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기관 측은 “현재 모든 상황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북한 친구들 도움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우수리스크 폭우 피해 현장에 나온 북한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국경이 닫

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연해주에 남은 북한 노동자들로 보인다.

현재 연해주에 있는 북한 노동자 규모는 1천~2천 명 정도로 추산되며, 상당수는 러시아 당국이 발급하는 학생 비자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복구 현장에 나온 북한 주민 규모와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폭우 피해 현장에 투입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3시간가량 머물다 평양으로 돌아간 해당 여객기에는 러시아에 머물던 주민 등이 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윤주 기자

中요식업계, ‘日해산물 수입 중단’에 유럽·중국산 조달 움직임

금수조치 후 줄줄이 “일본산 안 써” 안내…“공급망 다변화 계기”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중국 당국이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중국 음식점들이 유럽산 해산물이나 민물 양식 재료 등으로 식자재 조달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중국 매체 재일재경이 27일 보도했다.

2021년 중국호텔협회가 발표한 해물요식업 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의 해산물 요식업 시장 규모는 5천581억위안(약 101조4천억원)이고, 관련 기업은 1만5천곳 이상이다.

이 시장은 최근까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규모는 연간 7천억위안(약 127조2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해산물 상당 부분을 수입하던 일본에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음식점들은 식자재 조달 방식을 바꿔

야 할 처지가 됐다.

일식 브랜드 ‘와사비’ 관계자는 “앞으로 해산물 대부분을 프랑스와 뉴질랜드, 미국에서 수입할 것”이라며 “일부 식재료의 맛이 일본산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 래도 품질이 좋고 가격은 같다”고 말했다.

상하이에서 1인분에 2천위안(약 36만3천원)짜리 고급 오마카세(お任せ·주방장 특선 요리) 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이번 사건은 중국 본토 식재료 공급망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다”며 “푸젠성과 산둥성, 하이난성 등의 해산물이 모두 대체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가게는 공급업체 교체를 미리 준비해뒀다”고 했다.

일식 음식점들이 ‘일본산 식재료를 쓰지 않는다’고 공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일식 브랜드 ‘소림(小林) 사시미’는 최근 조개와 새우, 연어 등 식자재가 캐나

다나 러시아, 노르웨이, 호주 등에서 오고 성계와 관자는 디렉에서 조달한다는 안내를 내걸었다. 또 다른 일본 음식점인 ‘모다식당’은 최근 “광동요리 판매를 중이고, 모든 일본 재료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민물고기 소비가 많은 중국의 특성상 탐수 양식 산업도 주목받고 있다.

청하이성에서 양식으로 연간 1천t의 연어를 판매하는 한 업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몇 년 동안 생산된 연어 대부분을 수출했지만 올해 들어 90% 가량을 중국 내 소비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주로 가공업체나 프랜차이즈 식당, 슈퍼마켓 등에 공급된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로 이 업체엔 소매 채널의 구매 문의가 뛰었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 강철웅 기자

트럼프 ‘머그샷 굿즈’ 팔아 돈방석

100억원 단숨에 모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4번째로 기소되고 ‘머그샷’까지 찍는 과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단숨에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선거운동 캠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조지아주(州)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서 20분간 수감 절차를 밟고 풀려난 이후 현재까지 총 710만달러(약 94억2천만원)가 모금됐다.

특히 전날 하루에만 418만달러(55억5천만원)이 모여 트럼프 캠프 선거운동을 통틀어 24시간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X에 올린 머그샷 게시물

이들 상품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다!’(Never Surrender!)라는 문구가 쓰였으며, 가격대는 12~34달러(1만6천~4만5천원) 정도다.

그와 엑스(X·트위터)로 메시지를 올린 것은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일으킨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연관됐다는 지적으로 계정이 정지됐던 이후 2년 8개월만에 처음이다. / 윤정훈 기자

함께 크는 기술 함께 만드는 미래

SK하이닉스는 첨단 기술로
함께 성장하며 더 멀리 나아갑니다

협력사 인재채용 및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 지원 프로그램 첨년 Hy-FiveHy-Po
반도체 전문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분석특집지원센터
환경 이슈에 신제 대응하는 반도체 기업 연합 ECO Alliance

현대모비스, 5G 기반 완전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나서

이스라엘 기업과 ‘차량사물통신 통합제어기’ 협업…‘車 스스로 주행환경 판단’

현대모비스는 이스라엘의 통신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 ‘오토톡스’와 협업해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차량사물 통신(V2X·Vehicle to Everything) 통합 제어기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오토톡스는 V2X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근 퀄컴이 인수한 회사라고 현대모비스는 소개했다. 현대자동차도 지난 2018년 오토톡스에 전략적 투자를 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오토톡스와 협업해 개발하는 5G 기반 V2X 통합제어기는 현재의 통합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 방식과 달리 차량과 차량 또는 차량과 시설 간의 대용량·실시간 정보전달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자율주행 4단계’의 핵심 기술로 분류된다.



현대모비스, 오토톡스와 5G 기반 V2X 통합 제어기 개발

현재 완전 자율주행의 선행 기술인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은 차량에 장착된 센서가 주변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알림을 주는 수준이지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려면 차량이 스스로 주행 환경을 판단하고 제어해야 한다. 따라서 이동 중에도 주변 환경과 고속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5G 기반

의 V2X 기술이 필요하다.

현대모비스는 1~2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차량용 5G 통신 모듈 기술’의 자체 개발에 이어 V2X 기술 까지 융합한 텔레마티кс 신제품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텔

레마티克斯는 ‘통신’과 ‘정보과학’의 합성어로, 차량 등에서 무선통신을 활용해 주행 중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5G·V2X 통합 기술은 차 사고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통해 차 안에서 영상으로 주변 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직진 신호로 바뀐 뒤에도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교차로에 달린 카메라가 이를 중계해 경고를 보내는 식이다. 우회전할 때 획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전방 정체 상황 등도 차 안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5G·V2X 융합 기술을 통해 궁극적으로 텔레마티克斯 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 곽도훈 기자

홈쇼핑 ‘블랙아웃’ 도미노 되나 롯데 이어 현대도 송출 중단

홈쇼핑 업계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롯데홈쇼핑에 이어 현대홈쇼핑까지 방송 송출 중단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확인돼 송출 수수료 문제에 따른 홈쇼핑 ‘블랙아웃’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LG

헬로비전에 내달 말 이후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송출 중단이 현실화하면 서울(양천구·은평구)과 경기(부천·김포·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강원, 충남, 경북 등의 23개 지역에서 LG헬로비전으로 유료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현대홈쇼핑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들 지역의 LG헬로비전 가입자는 368만 가구로 알려져 있다. 다만 같은 지역에서도 LG헬로비전이 아닌 SK브로드밴드, KT 등 IPTV로 유료 방송을 보는 경우에는 현대홈쇼핑 채널을 그대로 시청할 수 있다. 앞서 롯데홈쇼핑도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티비에 오는 10월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했다.

송출 수수료 갈등은 해묵은 문제지만 홈쇼핑사가 자발적으로 방송 송출까지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홈쇼핑 업황 악화와 그

간의 송출 수수료 상승분 등을 고려하면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유료 방송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채널 사용료다. 지난해 송출 수수료 규모는 1조9천65억원으로 2018년(1조4천304억원)과 비교해 33.3% 증가했다.

한국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송출 수수료는 연평균 8%씩 증가해 지난해에는 방송 매출액 대비 비중이 65.7%에 달하기도 했다.

/ 노승만 기자

“LG베스트샵에 대형 피규어가”…LG전자·플레이모빌 팝업스토어

LG전자는 다음달 27일까지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 백화점 내 LG베스트샵에서 ‘LG전자X플레이모빌’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무드업 냉장고, 위시타워, 스타일러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과 플레이모빌과 협업해 만든 피규어가 함께 전시된 전시공간을 꾸렸다.

특히 LG전자 제품 설치기사, 요리 인플루언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표현한 150cm 크기의 대형 인물 피규어 3종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LG전자는 미래고객인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가 LG 가전 피규어로 브랜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Z 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출

생)에게는 수집욕을 불러일으켜 ‘가전의 새 발견’을 이끄는 계기로 활용되도록 플레이모빌과 협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가전을 재미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정 기자



GS25, 외국인 관광객 전용 교통카드 출시



편의점 GS25는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잡기 위해 업계 최초로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로카모빌리티와 손잡고 내놓은 ‘한복 춘식로카M’은 여행 플랫폼 크리에이트립과 함께 교통카드 기능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과 ABC 마트, 카페트루어스 등 전국 180개 매장에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GS25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7% 증가했고, GS25의 알리페이 결제 건수도 60.4%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고객이 찾는 교통카드를 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는 서울 명동과 이태원 등 외국인 고객 비중이 높은 235개 매장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했고, 올해 말까지 판매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양희진 기자

경북 안동댐에 발생한 녹조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긴급 저감조치에 나섰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5일부터 5억 원을 들여 도산서원~예안교~주진교 15km 구간에 녹조 제거선 2척을 투입, 시간당 200t씩 원수 정화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도산면 동부리와 예안면 주진교 일대에 녹조 차단막을 설치, 하류로의 확산을 막고 수차 30대를 가동해 녹조 생성을 억제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은 26일 도산면 서부리 일대를 찾아 녹조의 신속한 차단·제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기준 안동호 상류인 예안교 부근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9만4천95개/㎖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 박진호 기자

대전시, 운전면허 반납 혜택 확대 검토…대상 70세 상향 추진

최대 30만원 차등 지급 협의 예정…고령자 면허반납률 9% 불과

내년부터 대전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5세 이상 1만47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1만1천560명의 9.1%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고령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10만원인 반납 혜택을 최대 3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허를 소지만 하고 있다가 반납하는 경우 지금처럼 10만원을 지급하되, 반납 할 당시 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실제 운전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 3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면 필요한 비용이 많아지는 만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혜택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현재 65세 이상인 대상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면허를 반납한 3천504명 중 65~69세는 5.9%인 207명뿐이었다.

나머지 94.1%인 3천297명이 70세 이상이었지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2

면허반납

자동차운전면허증
000000-0000000

만7천57명) 가운데는 12.2%만 면허를 반납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70세 미만은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해 면허를 반납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어려울 수 있는 70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면허 반납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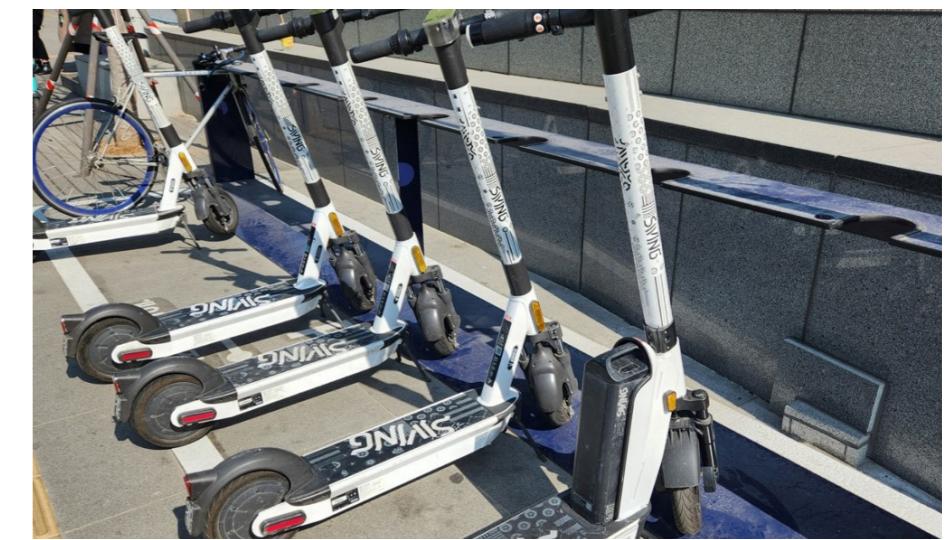
대전시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구 협력회의를 거친 뒤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서울·인천·광주·세종시가 운전면허 반납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대전에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고는 2018년 865건에서 지난해 1천75건으로 5년 사이 24.3% 증가했다.

이 기간 총 5천130건의 고령 운전자 사고로 59명이 숨지고 7천363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 대전지역 전체 교통사고는 2018년 7천487건에서 지난해 6천768건으로 9.6% 감소했다. 사망자는 85명에서 47명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과 함께 운전면허 갱신 때 적성검사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오정은 기자



국토부,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기준 마련한다…시속 25km 이하로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된다.

국도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중심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만들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런 도로를 신설·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

/ 민자환 기자

원주시청노조, 박정하 의원과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26일 지정 면 육계대교 인근에서 환경 유해식물 ‘가시박’ 제거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등 30여명이 활동에 나섰다. 가시박은 토양에 다른 식물이 자라날 수 없도록 타감물질을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유해 식물이다. 옥수수, 콩 등 작물 수확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박정하 국회의원(원주갑)도 처음부터 조합원들과 함께 가

시박 제거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평소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까지 참

여한 공무원들과 함께 땀 흘리는 좋은 시

간이 됐다”며 “가시박 제거 예산 현실화

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얼마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우해승 노조위원장은 “생태계 파괴와

지역 문제 등 다양한 지역 사회 기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노은 기자

주한미군, 연천서 취약계층 어르신들 위해 평상 만들어 전달



주한미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에서

들어 전달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평상을 만

주한 미8군 19지원사령부 94군사경

찰대 55군사경찰중대는 26일 연천군 신서면 대광 2리 마을회관 등 3곳을 방문해 직접 만든 평상 3개를 전달했다.

이 평상들은 마을 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쓸 예정이다.

평상 제작과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 한마음봉사회가 함께 했다.

레나쿠아 C 에드워즈 55군사경찰 중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 김유정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IRP연금수령시 관리수수료가 제로?

경이로운 퇴직연금
IRP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Dr.DT

연금 받을 때 IRP 관리 수수료는 없애고, 실수령액은 늘리고!
노후준비는 하나은행과 함께 하세요

*펀드 보수 등은 별도 발생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시에는 해당 퇴직연금에 대하여 충분히 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려낸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사업자가 적립금 운용 상품을 제작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품 결정 권한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IRP 계좌에서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상품을 운용할 경우, 귀하의 다른 계좌에서 운용한 예금자보호상품과 별도로 1만원 * 최고 5천만원 까지 보호됩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압력에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연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로 귀속됩니다. ※ IRP계좌의 침입방지증명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세제적금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제적금 전 결정형이 세제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최대 한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외 다른 시기 예금과 함께 납입금 및 수수료에 대해 기초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관리 수수료는 연 최소 0.1%~최대 0.45% 후회로 자산되어 신규체결, 금액증가, 부담금증류에 따라 달라 적용됩니다. ※ 자체한 사항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http://pension.hana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2080(문화시간 09:00~18:00)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 50일 만에 파업 잠정 중단

노조 “광주시 직접 운영 등 요구”…7월 7일부터 파업

광주시의 직접 운영 등을 요구하며 총 파업을 벌인 시립 제2요양병원 노조가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 시립요양병원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행의 행위를 중단했다.

다음 달까지 병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광주시·사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전 조합원 60명 중 지난달 7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던 50명은 현재 병원으로 복귀 정상 근무 중이다. 다만 광주시의 병원 직접 운영, 단체 협약 승계 등 노조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아닌 만큼 파업 철회는 아니다.

노조 관계자는 “의료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 무작정 파업만 벌일 수는 없었다”며



총파업 돌입한 광주제2시립요양병원 노조

지속 해 협상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파업 장기화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 장수경 기자

“관광 활성화” VS “교육환경 위협” 세종시 숙박시설 허용 논란

나성동 아파트 입주민들 “모두 만족하는 후보지 제시해야”

세종시가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부인 어진동·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 허용을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나성동 주거지역 숙박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주거지역 인근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주민의 주거·교육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특히 주거지역과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성동 면 자골목이 숙박시설 입점 제1후보지로 거론되는데,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나성동 5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 4천662명(3천200가구)의 숙박시설 반대 서명운동 결과도 이날 제시했다.

비대위는 “세종시청이 있는 보람동의 경우 2021년 숙박시설 반대 운동에 5천500여명이 서명했고, 시는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모두가 만족하는 숙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단지 전경

반영해 숙박업 허용 추진을 철회했다”며 “보람동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나성동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숙박시설 허용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연 비대위 대표는 “주거지역 인근에 숙박시설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이지 시내에 숙박시설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모두가 만족하는 숙

박시설 설치 후보지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나성·어진동 일대의 소규모 숙박시설 입점은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와 관광, 상권 활성화 등 세종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시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거·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중심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허용 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업(객실 30실 이상)과 가족호텔업(객실 30실 이상)은 가능하지만, 호텔업(객실 기준 없음)과 소형호텔업(객실 20실 이상~30실 미만)은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한호석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9월부터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

충남 내포신도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다음 달부터 ‘내포 자동크린넷’으로 이름을 바꿔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달노동자에게 안전기회소득을 지급하려는 도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에

대

한

국

민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민

국

제구·정신력 모두 '몬스터'…한국 복귀 아직은 이른 류현진

복귀 후 3승 1패 평균자책점 2.25…WHIP는 1.00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다는 재활에 한창이던 지난 겨울,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내 복귀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너무 늦기 전에, 아직 힘이 남아 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 한국 야구팬들과 재회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복귀 후 메이저리그 마운드에서 여전히 '코리안 몬스터'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다. 류현진은 27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홈 경기에 선발 투수로 등판해 5이닝 4피안타 5탈삼진 3실점(2자책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팀의 8-3 승리를 견인한 류현진은 이번 시즌 5번째 등판에서 시즌 3승(1패)을 수확했다. 평균자책점은 2.25다.

복귀 후 류현진 투구의 세부 성적을 보면 제구력 하나만큼은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5경기에서 24이닝을 던진 류현진은 볼넷을 단 5개만 허용해 9이닝당 볼넷(BB/9) 1.88을 기록 중이다. 절묘한 볼 배합과 제구력을 앞세워 삼진은 20개를 잡아내 삼진/볼넷(K/



출출이 나온 내야 실책으로 6회 마운드를 내려가는 류현진

BB) 비율은 4.00이다.

아직 표본(24이닝)이 적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워도, 규정이닝을 채웠다고 가정하면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10위권 안팎의 BB/9와 K/BB 비율을 유지한다.

제구력이 좋다 보니, 강속구가 없어도 좀처럼 안타를 허용하지 않는다.

류현진의 이번 시즌 피안타율은 0.211, 이닝당 출루 허용(WHIP)은 1.00이다.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WHIP 최저는 조지 커비(시애틀 매리너스)로 1.03을 기록 중이다. 류현진이 복귀 후 얼마나 안정적

인 투구를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

는 대목이다. 여기에 류현진은 토론토 수비진의 실책에도 무너지지 않고 꾃끗하게 마운드를 지킨다. 이날 5회까지 솔로 홈런 2방으로 2점을 내주긴 했지만, 공 60개로 승리투수 요건을 채운 류현진은 6회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콜 켈흔에게 안타를 내준 뒤 호세 라미레스, 오스카 곤살레스에게 연달아 내야 땅볼을 유도했으나 각각 3루수 맷 채프먼과 유격수 산티아고 에스파뇰이

실책으로 주자를 살려줘 만루에 몰렸다.

이닝을 끝내고 복귀 후 첫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3자책점 이내)에 성공할 수 있었던 류현진은 결국 마운드를 내려가야만 했다.

자칫하면 승리가 날아갈 뻔한 상황에서도 그는 씩 웃으며 마운드를 내려갔고, 더그아웃에서 평온한 미소와 함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다. 류현진은 최근 3경기 연속 수비 실책 때문에 접수를 허용했다.

이번 시즌 11실점 가운데 자책점은 6점에 그친다. 보통 투수였다면 수비 실책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위기에서도, 산전수전 다 겪은 투수답게 실점을 최소화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복귀 후 구속은 떨어졌어도, 제구력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털'을 앞세운 류현진은 여전히 메이저리그에서 매력적인 선발 투수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론토와 4년 동행을 마치고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나온다.

지금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시즌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 최준용 기자



8번 홀 출인원 기록하고 기뻐하는 김세영

'홀인원' 김세영, LPGA 캐나다 대회 3R 2위

선두와 3타 차…선두는 메건 캉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PKC 여자오픈(총상금 250만 달러) 3라운드 2위로 올라서며 역전 우승을 노린다.

김세영은 27일(한국시간) 캐나다 벤쿠버의 쇼너시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 72·6천709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3개,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합계 8언더파 208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전날 공동 6위에서 4계단 오른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독 선두를 달린 메건 캉(미국·11언더파 205타)과는 3타 차다.

2020년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LPGA 투어 통산 12승

을 보유한 김세영은 2020년 11월 웰리컨 챔피언십 이후 승수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시즌엔 툴100에 한 차례도 들지 못한 채 지난달 US여자오픈의 공동 13위가 최고 성적인데, 이번 대회에선 사흘 내내 상위권에서 경쟁하며 반등 기회를 맞이했다. 이날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 김세영은 6번 홀까지 파를 지켜다가 7번 홀(파5)에서 첫 버디를 뽑아냈다.

이어 8번 홀(파3·184야드)에서 5번 아이언 티샷이 그대로 들어가며 홀인원을 작성했고, 9번 홀(파4)에서 다시 한 타를 줄이며 기세를 올렸다.

10번 홀(파4) 보기로 흐름이 잠시 끊기긴 했지만, 김세영은 13번 홀(파4)에서 버디를 써내고 원온 시도가 가능한 14번 홀(파4·265야드)에선 티샷을 그린에 올린

뒤 이글을 낚아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티샷이 오른쪽 러프에 빠진 뒤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옮기지 못한 여파로 보기를 써내며 마친 것은 아쉬움이 남았다.

김세영은 홀인원 상황에 대해 "아이언 샷이 굉장히 잘 맞았다. 치는 순간 갤러리의 환호성이 나와서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후 더 큰 소리가 나서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14번 홀 이글 상황에 대해선 "티를 그 정도로 앞으로 당겨놨을 줄 몰랐다.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고, 드라이버를 친 게 잘 올라가서 이글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캐나다에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한국 분들도 많이 계셔서 친숙하다. 분위기도 좋아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다"면서 "내일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LPGA 투어에서 190경기를 치르는 동안 우승이 없는 캉이 2라운드에 이어 선두를 지킨 가운데 2019년 이 대회 우승자인 세계랭킹 3위 고진영은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한 타를 줄이며 캉(미국·3위·6언더파 210타)과는 3타 차다.

고진영은 "경기 내용이 아쉬웠다. 위기 도 많았고, 어제만큼 버디 기회가 많지 않아서 타수 줄이기가 힘들었으나 언더파로 마무리해서 만족한다"면서 "많은 한국 팬이 응원해주시기에 내일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성원 기자

"그만할게요"…'좀비'답게 싸우고 은퇴 선언한 정찬성

홀러웨이에 3라운드 KO패…경기 끝나고 글러브 벗고 큰절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격투기 선수 '코리안 좀비' 정찬성(36)은 질 것을 알면서도 가드를 올리는 대신 돌진을 선택했다.

배수의 전을 치고 마지막 힘을 짜내서 맥스 홀러웨이(31·미국)에게 돌진한 그를 기다리는 건 카운터 펀치였다.

정찬성은 홀러웨이의 펀치에 맞고 쓰러지면서도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답게 마지막까지 주먹을 뻗었으나, 승리를 직감하고 뒤로 물러선 홀러웨이에게 달지 못했다.

정찬성은 27일(한국시간)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홀러웨이 vs 코리안 좀비' 메인이벤

트 페더급 경기에서 홀러웨이에 3라운드 KO로 패했다.

정찬성은 경기가 끝난 뒤 마이크를 건네받자 떨리는 목소리로 "그만할게요"라고 입을 떴다.

2007년 종합격투기 무대에 뛰어들어 16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좀비'의 주먹이 멈춰선 순간이다.

"내가 그만하는 이유는 (나는) 챔피언이 목표인 사람이다. 홀러웨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후회 없이 준비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간 그는 "저는 3등, 4등, 5등 하려고 격투기한 거 아니었다. 챔피언이 되려고 했는데, 텁 랭커를



이기지 못하니 냉정하게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한다"라고 은퇴를 선언했다.

글러브를 벗어서 옥타곤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그곳에 큰절한 정찬성은 어깨를 들썩이며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앞서 "그만할게요"라고 말한 뒤 곧바로

"을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난다"고 했던 그도 감정이 북받치는지 눈물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다.

자신을 상징하는 음악이었던 더 크랜베리스(The Cranberries)의 '좀비'(Zombie)가 훌러나오는 가운데 링을 내려간 정찬성은 오열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준 채,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와 함께 옥타곤 무대에서 퇴장했다.

정찬성은 한국인 파이터 가운데 유일하게 챔프전을 치른 선수다. 그것도 두 차례나 말이다.

정찬성은 UFC 2연패로 종합격투기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그 상대가 페더급 챔피언 볼카노프스키, 그리고 페더급 1위 홀러웨이였다.

승자 홀러웨이는 정찬성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을 드러냈다.

/ 신재일 기자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경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세무상담



조세불복지원

경정청구

상속, 증여세 자문

세무조사지원

세무신고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

예규, 판례 등의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약속 드리며, 정확하고 문제없는 세무신고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 세무법인 명인 구로중앙유통점의 기업이념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원활한 소통, 빠른 피드백 등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선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58 업무 A동(신한은행 건물) 10층
| 전 화 | 02)532-0456 | 팩스 | 02-532-0121

관객수 적고 혹평...정우성 '감독 도전기' 씁쓸한 마무리 준비

첫 장편 '보호자' 부진한 성적..."기시감 큰 스토리에 주인공 서사 비어"

배우 정우성이 감독으로 변신해 선보인 첫 번째 장편 영화 '보호자'가 씁쓸한 결과를 받아 든 채 극장가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폐인으로는 진부한 스토리와 주인공의 서사 부재가 가장 먼저 꼽힌다.

26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정우성이 연출하고 주연한 '보호자'는 누적 관객 수 약 12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평일 하루 관객 수는 2천명대까지 떨어졌다. 예매율 역시 0.5% 안팎으로, 조만간 극장 상영을 마치고 주문형비디오(VOD) 시장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5일 '보호자'와 동시 개봉한 한국 영화 '달지지근해: 7510'이 하루 3만명대를 유지하며 60만 관객을 돌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영화는 10% 이상의 예매율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이머'와 엠파워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양분하는 극장가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단지 대진운이 좋지 않아서 '보호자'



영화 '보호자' 뒷이야기 장면 중 정우성

가 흥행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보호자'는 관객에게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듣고 있다. 실 관람객의 평점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CGV 골든에그지수는 71%로 현재 상영작 가운데 최하위다. 콘텐츠 평가는 플랫폼 앗차피디아에서는 5점 만점에 2점을 기록 중이다. 비교적 후

한 평가를 받는다고 여겨지는 네이버 영화에서도 10점 만점에 5.94점을 받았다.

영화계에서는 관객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요소가 이 영화에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영화는 10년 만에 출소해 딸의 존재를 알게 된 수학(정우성 분)과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그를 가만두지 않

으려는 이들의 추격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전부터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남자 캐릭터, 딸과 아버지의 관계, 악당이 이들의 행복을 가로막으려 한다는 스토리 모두 진부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 밖에도 관객들 사이에선 주인공으로 수력을 내세웠으면서도 정작 그에 대한 서사를 생략해 극을 따라가기 어려운 점, 캐릭터들이 이른바 '오버스럽게' 표현된 점 등을 지적하는 평을 남기고 있다.

정우성이 갑자기 연출을 맡는 바람에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보호자'는 정우성이 주연만 맡고 다른 감독이 연출하기로 돼 있었지만, 해당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하면서 정우성이 연출까지 하게 됐다. 정우성과 절친한 이정재도 이런 식으로 영화 '헌트'(2022)를 주연·연출한 바 있다.

/ 임형석 기자

NCT 127, 10월 정규 5집 '팩트체크' 발매



그룹 NCT 127

그룹 NCT 127이 10월 6일 정규 5집 '팩트체크'(FACT CHECK)를 발매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올해 1월 발매한 정규 4집 리패키지 '에이-요'(Ay-Yo) 이후 9개월 만의 정규 앨범이다.

NCT 127은 정규 4집으로 리패키지 음반 합산 누적 판매량 320만장을 넘어서

기도 했다.

2016년 노래 '소방차'로 데뷔한 NCT 127은 '영웅', '스티커', '질주' 등의 히트곡을 냈다.

오는 30일에는 다큐멘터리 'NCT 127: 더 로스트 보이즈'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한다.

/ 박수현 기자



가수 션, 독립유공자 후손에 9번째 집 현정

가수 션이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9번째 집을 완성했다.

2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션과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24일 충청남도 보령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새 보금자리 현정식을 가졌다.

이번에 지어진 9호 집은 김정규 애국지사의 자녀인 김중정 할아버지에게 현정됐다. 김정규 애국지사는 중국에서 열린 만세 운동에서 행진 시위를 이끌었으며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기도 했다.

션은 기부 마련athon '815런'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이번 집을 완공했으며 지난 5월 직접 건축 현장을 찾아 지붕 마감 공사 등에 힘을 보탰다.

션은 2020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100채의 집을 현정하는 것을 목표로 기부 마련athon '815런'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8억원이 모였으며 경북 영천과 예천, 충남 예산, 강원도 강릉에서 10~13호 집이 지어지고 있다.

/ 박소희 기자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양현석 마약수사 무마' 제보자, 재판서 "처벌 원치 않아"

한서희 "진심어린 사과 바랐다"

"협박당했다" 주장은 유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가 "양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공판을 열고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4년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지쳤다"며 "양 전 대표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만을 바랐다. 양 전 대표의 죄를 입증하고 벌 받길 원한다기보다 이싸움을 그냥 끌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씨는 2016년 8월 마야 혐의로 체포돼 YG 소속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양 전 대표가 자신을 사옥으로

로 불러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며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는 기준의 주장은 바꾸지 않았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이 "협박을 당해 공포감을 느낀 이후에도 다른 YG 소속 가수들과 접촉하고 마약류를 흡연한 것"이나"고 묻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나"며 항변하기도 했다.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돈을 압속받고 '털'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털은 양 전 대표가 한 것이 아니나. 만약 사례를 받았다면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을 마지막으로 양 전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를 종결하고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을 들은 뒤 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이은정 기자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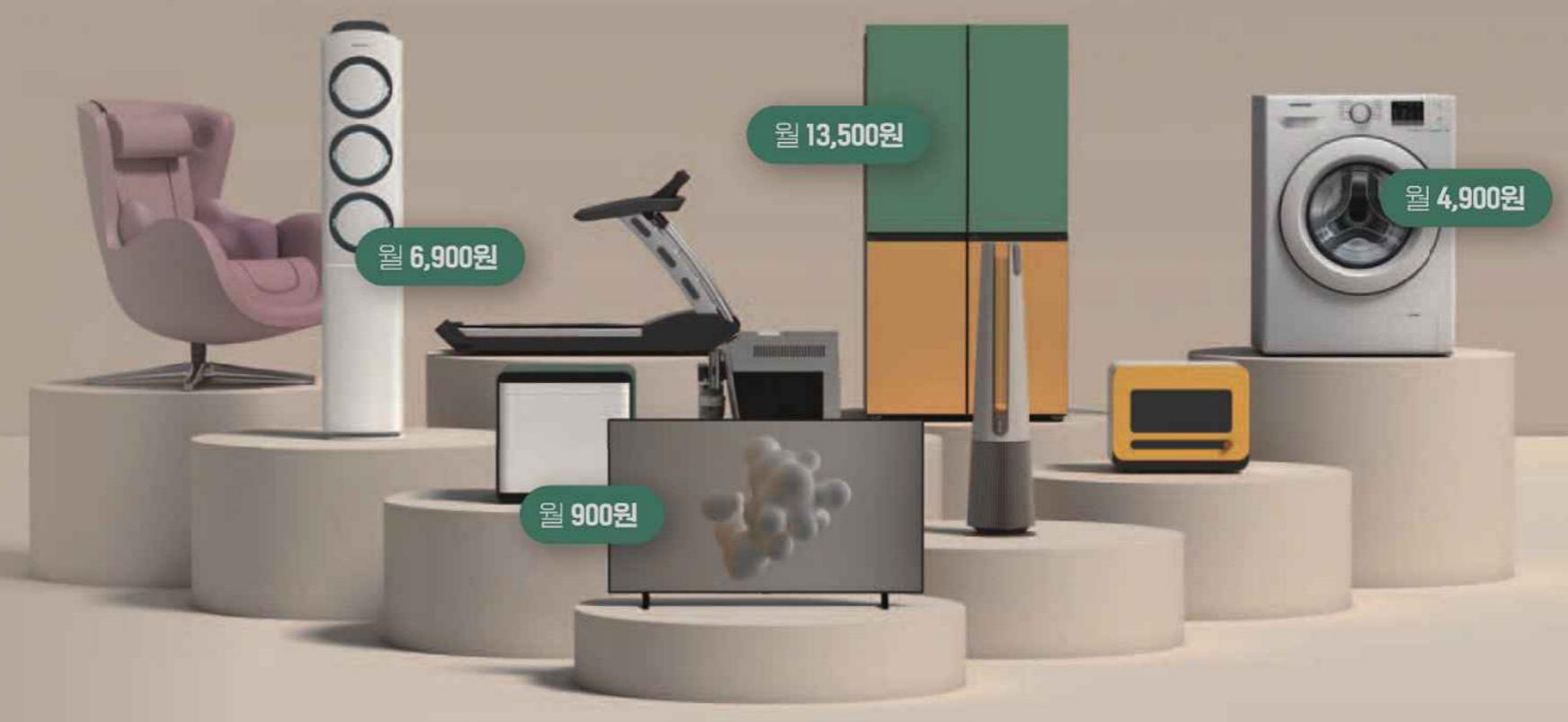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상담문의 1855-1082



금융의 모든 순간 *

NH농협금융

매주 전화로 꼭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식사는 거르지 않는지 행여나 적적하지는 않나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를 받을까 하니부터 열까지 물어봅니다

나를 한결같이 챙겨주는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준 은행

나의 은행 이야기

농촌 독거 어르신 밀벗서비스

NH농협은행은 2008년부터 농촌 지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안부 전화 서비스로 따뜻한 말씀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